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2019년 7월 26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25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19. 7. 25. (총 3쪽)	담당부서	축산환경과		
담당과장	곽정훈 과장 (063-238-7400)	담당자	김종복 연구관 (063-238-7430)		

‘여름철 축사 정전’, 철저히 대비 하세요

- 정전 경보기 설치하고 전력량 120%로 자가발전기 준비 -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불볕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고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정전 대비·대응 요령을 제시했다.

<p>#1 2019년 7월,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1시간여 동안 정전이 발생해 무창식 축사에 있던 돼지 100여 마리가 질식사했다.</p> <p>#2 2018년 8월, 충청남도 당진의 한 양계농장은 정전으로 송풍시설이 멈추면서 닭 8만 7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.</p>
--

- 축사에는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장치와 환기·냉방 시설 등 전기가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많아 여름철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
- 축사 전체가 밀폐되어 있는 무창식 축사는 정전으로 환기팬이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유해 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 철저히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.




← 가솔린 발전기



← 디젤 발전기

- 자가 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%로 설치하며, 연료 점검과 시험 운전으로 평상시 작동 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.
-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한다.
- 개방식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밖에서 바람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장애물을 치운다.
-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.
-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뿌릴 경우, 상대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- 여름철 갑작스런 벼락이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.
 - 피뢰침을 점검하고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설치해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한다.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곽정훈 과장은 “예상치 못한 여름철 축사 정전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를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【참고자료】 여름철 축사 정전 대비

	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농업연구관(☎ 063-238-7430)에게 연락 바랍니다.
	<small>공공누리 공공정보開放(중·고)</small>

【참고자료】

여름철 축사 정전 대비

※ 자가발전기 설치 시 필요 전력량 계산

필요 전력량 계산 방법

◇ 직경 630mm 환기팬(220V, 3A, 660W) 10대를 동시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.

$$- 660W \times 10대 = 6.6kW \times 120\% = 7.9kW$$

이외에 전등, 모터 등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됨

<그림 자료>



<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발전기의 모습>